

스토리텔링을 위한 모멸형 캐릭터 연구

이강현*
중부대학교 방송영상학과

A study of contempt characters for storytelling

Kang-Hyun Lee*
Dept of Broadcating and Visual Art, Joongbu University

요 약 작가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형상화시켰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문학작품의 가치를 규명하는 필수적 과정이다. 시대적 현실상황과 작품사이에는 일정한 대응관계가 있는데 이 양자를 매개하는 것은 바로 작가의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학적 인식행위는 작품의 외면적 현실을 통해 삶의 내재적 본질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문학작품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실을 문학자체의 예술적 방법으로 형상화시켜야 한다. 문학작품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어떠한 예술적 방법으로 현실성을 획득하고 또 형상화시켰는가를 규명해야한다.

주제어 : 캐릭터, 의식, 플롯, 미디어, 서사구조

Abstract A novel is a conversation between self and the real world. They are not only sensitive act to the real world, but also a pattern of the real through the converse between self and the real world without making the real his own.

This analysis on the works of Son and his essence shows that he tried to express his self-denial aesthetics and human-denial aesthetics as well as self-closing aesthetics.

Key Words : Character, converse, plot, media, novel

1. 작가의식의 일반성

고대의 서사시를 자아와 세계 사이의 균열이 없는 전체성을 지닌 문학 장르로 본 루카치¹⁾는 현대를 자아와 세계가 대립되는 시대로 봄으로써 소설의 현실과 자아 사이의 관계를 특히 주목하였다. 또 소설이 사건이 일어난 세계의 전말에 대한 심미적 기록인 것처럼 작품 속에 반영된 사회적 요소는 이른바 작가적 시각에 의해서 재구성된 세계이다.

따라서 소설은 사회적 반영체 라는 전제위에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구현된 심미적 세계이자 작가의 시각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굴절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 굴절 역시 그 각도와 형태는 작가인식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결국 현실은 문학이 구축하는 세계라는 의미보다 작품에 구현된 작가의식의 기저로서 의미가 강하다.

모든 작가는 그 자신만의 고유한 이미지와 언어 그리고 상상 의 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턴을 스스로 반복

Received 29 November 2013, Revised 20 December 2013
Accepted 20 December 2013
Corresponding Author : Kang-Hyun Lee (Joongbu University)
Email : bleusky@joongb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Georg Lukacs, 『소설의 이론』, 반성환역, 심철당, 1950, P.73.

하는 방법을 지니고 있다고 하지만, 상상력이 아무리 풍부하고 다양한 작가라 할지라도 그 자신의 개별적 언어 체계와 고유한 현실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Leon Edel²⁾의 견해는 작가적 상상력보다 현실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소설이 현실에 대한 작가인식의 여파로 구축된 세계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1950년대 시대상황을 전쟁으로 인하여 야기된 가치관의 혼란과 개인적 이기주의의 팽배로 한국의 전통적가치관이 무너지고 문학과 예술도 삶의 한 수단으로 전락된 현실로 김우중이 규정한 것처럼 이 시대의 현실은 무질서하고 불안한 혼돈상태였다.

의식의 형성은 자신의 모습과 현실을 발견하는 데서 유래한다는 Jung³⁾의 견해처럼, 손창섭의 소설에 보이는 무질서와 혼돈, 채념, 절망 등은 바로 이러한 현실이 의식화되어 작품으로 형상화될 것이다.

작가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형상화시켰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문학작품의 가치를 규명하는 필수적 과정이다. 왜냐하면 시대적 현실상황과 작품사이에는 일정한 대응관계가 있는데 이 양자를 매개하는 것은 바로 작가의식이기 때문이다.

문학적 인식행위는 작품의 외면적 현실을 통해 삶의 내재적 본질을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문학작품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실을 문학자체의 예술적 방법으로 형상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문학작품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어떠한 예술적 방법으로 현실성을 획득하고 또 형상화시켰는가를 규명해야한다. 이러한 작업은 작가가 처한 시대 상황과 현실의 본질을 살펴보고 작품의 분석을 통하여 작가의식을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작가가 파악한 현실은 그 시대가 작가에게 부과하는 문제다. 이러한 것들은 해결하려는 방법 역시 결국 그의 감수성이나 기질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가 활동하고 있는 문학 전통의 특성이나 또는 이 전통을 수정하고자 하는 우선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견해는 작가의식과 현실과의 등가적인 의미관계를 제시해 준다.

손창섭은 그 자신이 작품은 작가의 인생체험의 반영이라고 강조한 것처럼 그의 성장과정의 체험을 비롯하여

인생관, 세계관, 기질, 사회의식 등이 의식화되어 작품 속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사람은 가장된 자신을 그린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고 싶은 자신을 보여 주는 것이다. 라는 루소의 견해에서 본다면 작품에 반영된 자아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작품 안에 형상화된 자아는 비록 자서전이 아닐지라도 자신의 의식의 반영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작중인물과 공간을 통하여 손창섭의 의식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손창섭 소설의 가치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시도가 될 것이다.

내적연구의 궁극적 목표를 그 전달의 미를 바탕으로 하는 미적가치에 둔다면 가장 중점을 두고 연구해야 할 대상은 작중인물인데 작중인물을 통해 자신의 창조자인 소설가의 의식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작품의 내적질서규명은 작중인물을 통하여 의식구조연구와 함께 검토할 때 가능한 것이다.

김치수⁴⁾가 자조적인 손창섭 문학은 개인으로서 어떤 논리적인 바탕도 없으면서 자의식 갖게 되고 전체적인 것에 반발을 보이고 있다고 한 견해처럼 그의 자의식은 논리적인 바탕보다는 자기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 졌다.

s.freud는 모든 예술작품이란 그 작가의 저지된 욕망의 대리 만족물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작품이 작가의식의 변형된 반영이라는 등식을 성립시킨다. 이와 같이 작품의 기저에는 의식이 위치하고 있는데 작품은 결국 의식의 범주를 벗어 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작품이 작가의식의 반영이며 분신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불구적 인물구조를 분석하여 작가의 체험과 사회적상황이 어떠한 모습으로 작가의식에 투사되었는가를 살펴 본 다음, 투영된 작가 의식을 규명하여 손창섭의 의식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손창섭 소설이 작가자신의 극히 개인적인 긴장에서 출발하여 자아라는 하나의 구심점을 향하여 문학적인 모든 의장이 회기 한다는 연구업적을 참고하여 의식의 포로가 된 주동적 인물을 통해 구현되는 자의식의 양상을 고찰하여 작가의식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의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모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작중인물의 의식을 지배하는 자아성찰, 자

2) Leom Edel, 『작가론의 방법』, 김윤식역, 삼영사, 1983, P.89.

3)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1993, P.46.

4) 김치수, 『현대한국문학의 이론』, 민음사, 1976, P.151.

5) psychoanalysis and Literature, edited by hendrik M. Ruitenbeek, new york : E. P. Dutton & Co. Inc 1964. P. X.

아분열, 자아상실, 자아해체 등의 본질적 모티브를 단계적 발전에 따른 자의식요소로 추출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의식의 문제는 심리적 범주에 속하므로 심리적 연구방법에 의해 연구하고자 한다.

인간의 마음은 고정불변한 여러 개의 요소가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마음의 구조를 보면 먼저 자아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의식이 있고, 또 내가 모르는 정신세계 즉 무의식세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무의식은 자아의 통제밖에 있으며 미지의 정신세계라고 일컫는다. 의식의 중심이 되는 자아는 나의 정신의 나의정신에 의식된 부분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나의 전체를 총괄하고 자각하려면 무의식적인 것을 하나씩 깨달아나가는 의식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무의식의 내용은 그림자이다. 그림자란 자아의식의 무의식적 부분을 말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 어둠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자아의 일부분이다. 그림자 다음에는 마음 즉,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의식화가 뒤 따른다.⁶⁾

Jung은 의식을 많은 콤플렉스의 하나로 보고 이것을 자아콤플렉스라고 정리했는데 이 콤플렉스는 의식의 내용을 이루는 동시에 의식이 의식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 이 의식은 소위 정신의 네 가지 기준인 사고, 감정, 감각, 직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설이 구축한 세계는 현실자체가 아니고 작가의식에 의한 재구성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파생한 작가의 개성적 체험은 소설의 미적목적에 맞도록 변형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경험과 소설의 미학적인 형식 사이에는 필연적인 갈등이 생기는데 이 갈등의 예술적 극복이 바로 작가의 식이다.

2. 모멸적 캐릭터의 투사

소설이 인간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때 작중인물의 중요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인물은 스토리(Story)를 주도하면서 이야기를 성립시킨다.

현대소설은 성격을 창조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

는 데에 가장 큰 비중을 두는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요소가 바로 작중인물이다. 작중인물을 통해 작가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드러난다.

손창섭은 1950년대의 작가 중에서 가장 현저하게 의식의 특이성을 보여주는 작가이다. 그는 암담한 시대상을 배경으로 비정상적인 인격 파탄자를 작중인물로 제시하는데 이러한 인간군상의 고찰은 손창섭 의식세계를 밝히는 데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손창섭 자신이 밝힌 소설에 대한 견해를 보면 소설이란 결국 작가 자신의 이야기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그 체험의 질과 표현의 능력 여하에 따라 가치가 좌우되는 차이는 있겠지만 소설이란 이렇듯 작가의 인생체험의 반영이요 표현임은 부정할 여지가 없을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은 작중인물을 통하여 그 자신의 특이한 의식세계가 그대로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의 모습들이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소설의 인물은 자신의 창조자인 소설가의 의식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했듯이 「신의 회작」에 등장하는 S는 전후의 불안한 시대적 배경과 작가개인의 처절한 생활체험에서 표현된 인물 즉 작가자신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작가의식의 추적이 작중인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손창섭 소설의 작중인물들은 피해와 자조의식으로 일관되게 설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인물설정은 그의 인간관찰이 단조로웠다는 사실도 보여주지만 이들이 손창섭 자신의 내적 체험에 의한 의식의 반영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또 이러한 비정상적이며 부정적인 작중인물의 설정은 그가 인간을 어떠한 측면에서 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된다.

인간의 가치에 대한 손창섭의 의식은 그의 소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국면으로 그것은 당시의 시대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인간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간관 고찰은 그의 소설이 지니고 있는 특이한 의미내용의 근거를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소설 연구에 의미를 갖는다. 인간을 바라보는 작가적 시선은 인간의 가치를 부정하는 모멸로 가득 차 있다. 그의 작품 「낙서족」의 일절을 보자.

앞으루두 저이 오빠와는 가깝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이 오빠는 하나님을 배반하구 모친의 사랑을

6) 이부영, 앞의책, P.42. Jung은 마음을 Seele(뉘)이라했고 내적 인격의 특성을 남자는 아니마(anima) 여자는 아니무스(anmimus)라고 했다.

에 반역하는 사람예요. 조국의 기대와 사회의 요구에 역행하는 바탕이예요. 저는 오빠를 경멸해요. 증오해요. 단지 남매간 이라는 혈육관계 이외에는 아무런 경의두 애정두 갖구있지 않아요. 저는 단 하나뿐인 마음의 오빠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⁷⁾

누이동생인 상희의 시선을 통하여 바라본 오빠의 평가는 인간 가치의 부정이다. 상혁은 이상을 추구하는 인물이 아니다. 상혁에 대한 경멸과 증오는 인간에 대한 경멸이자 가치의 부정이다. 손창섭의 현실적 시각에서 인간은 더 이상 숭고하지도 않고 존엄하지도 않은 경멸의 대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창범의 지적대로 자기 모멸의식의 확대심화이다. 인간 경멸의 격정적 충동은 그 당시 현실적 시각에서 파생된 의식의 형상화이다.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 속에서 인간들의 삶은 참혹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본능적인 모습의 인간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까지 당신이 도전적으로 비꼬고 나오신다면 저도 기탄없이 말씀드리겠어요. 저는 당신의 그 안일주의, 향락주의, 수욕주의, 세속주의가 싫어요. 경멸해요. 그러나 일단 부부로 맺어진 인연이니 성실껏 받들어 섬기리라 결심하고 십여 년을 꾸준히 참고 애써 왔어요!⁸⁾

인간에 대한 모멸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능적 행위까지 심화된다. 남편 차성일의 부부행위는 정상적이다. 그러나, 인간 자체에 대한 모멸의 시각은 부부의 성관계까지 조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조소는 인간을 인간답게 바라보지 않고 동물 이하로 여기는 데서 파생한다. 성행위는 인간의 기본적 본능이다. 또 종족 본능 측면에서도 가장 인간적인 행위이다. 이러한 부부의 사랑을 세속주의·수욕주의라고 매도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를 부정하는 모멸의식의 표출이다. 인간에 대한 모멸은 인간 그 자체의 모멸로 발전한다.

한번도 제대로 손질을 해본성 싶지않는 봉두 난발에, 과도히 작은 머리통, 기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검고 속된 얼굴 모습, 정제 없는 희멀건 눈. 불안하게 길고 가

는 목, 본새 없이 좁고 찌그러진 어깨, 게다가 팔이라는 건 이게 양쪽이 아주 짝짝이다. 그 밖에 억지로 뽑아 늘인 듯이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는 동체며 다리, 어느 한구석 정상적인 엄격한 인간 규격에 들어가 맞는 품모는 도시 아니다. S의 외형이 이런 꼬락서닐 제야, 그 내부 세계 또한 규격 미달의 불구 상태일 것은 거의 뻔한 노릇이다.

손창섭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라고 밝힌 신의 회작에서 S는 시시한 삼류소설작가 즉, 손창섭 본인을 의미한다. 외형 묘사를 통해 표현된 S의 모습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다. 보기조차 흉한 비정상적인 모습은 인간의 가치를 하락시켜 모욕하고 멸시하는 손창섭의 작가적 태도에서 기인한다. 외형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규격 미달의 비정상적인 인간의 설정은 4.19이후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무기력하고 비윤리적인 인간에 대한 전망에서 온 것이다. 특히 6.25의 비참한 체험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실망의 의식화이다.

손창섭은 그의 성장기 체험에서 오는 어머니에 대한 적개심과 자신의 신체적 결함인 야뇨증에서 오는 자신에 대한 선망감이 복합되어 인간모멸의 의식으로 승화되었고 이 의식이 작중인물을 통하여 예술적 전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 이러한 의식은 투사작용(Projection)을 거쳐 인간을 비웃게 되고 세상을 조소하게 된다.

1960년대 현실은 비참하면서도 절망적인 공간이다. 이러한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비인간적 모순에서 손창섭의 모멸의식은 형성되었고 이 의식은 인간의 가치하락을 형상화함으로써 발아되었다. 이러한 인간 모멸의 식은 인간을 동물이나 구더기 등으로 비유하면서 심화된다.

그런데 동주에게는 이 일대 주민들이 온통 구더기처럼만 보이는 것 이었다. 이 방대한 거름더미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구더기, 구더기. 샘터 또한 동주에게는 적지않이 무서운 곳이었다.⁹⁾

손창섭은 전후의 참혹하고 혼란한 현실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이러한 배경위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무기력하고 비정상적인 인물들을 형상화시켜 놓고 있다. 이처럼 규격 미달의 인물설정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인간의 추악하고 무기력한 모습에 보내는 자조적 냉소인

7) 『낙서족』 P.30.

8) 『부부』 P.62.

9) 『생활적』 P.351.

것이다.

6.25라는 전대미문의 동족상잔을 겪고 난 우리의 현실은 절망적이고 처참한 상황이다. 손창섭은 이러한 현실에서 밝고 건전한 세계를 찾을 수 없었다. 작가가 바라본 현실은 좌절과 혼란의 공간이다. 이미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규격미달의 정신적, 육체적 불구자들은 절망적인 현실에서 좌절해 버린 인간들의 형상화이다. 이러한 인간들에 대한 모멸은 인간자체의 자학적인 상태로 발전한다.

점잖은 사람이 어딴어. 교육자나, 목사나, 사회명사나, 모두들 겉으로만 점잖은 체하는 거지, 진짜로 속까지 점잖은 건 아니다. 도리어 너 보다두 몇 배나 더 더럽구 못된 사람들이지.¹⁰⁾

규격미달의 불구자 인물을 통하여 인간의 가치를 비하시키고 모멸한 손창섭의 작가의식은 그 폭을 점차 확대한다. 모든 인간들을 조소의 대상으로 삼아 모멸의식의 확대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정신적으로 존경받는 계층인 교육자나 목사까지도 더럽고 추악한 존재로 비하시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멸의식의 확대 심화이다.

그러지 못하고 비굴하게 굽실거리다 나온 자신에 대해서 은근히 화가 동했다. 수시로 경찰에 농락과 굴욕을 당하고 있음에 비해서 자신이 너무나 무가치한 것 같기도 했다.¹¹⁾

모든 인간에 대하여 불신하고,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하여서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인간을 긍정적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여 무가치한 존재로 하락시킨다. 인간가치의 부정은 부정에서 그치지 않고, 인간을 동물보다 더 존재가치가 없는 경멸의 대상으로 파악한다.

인간에 대한 모멸은 나아가서 자기모멸이다. 이러한 모멸의식은 4.19이후 격변하는 현실 속에서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 대의를 부르짖는 비윤리

적인 인간들을 경멸하고, 또 6.25 이후의 무기력하고 부정적인 군상에 대해 냉소하는 것이다. 이 의식은 신체적인 결합과 성장기의 불우했던 과거가 앙금되어 남아 있는 자신에 대한 부정이기도 하다.

순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물귀신이 운다는 소리가 연상되어 처음 얼마 동안 동주는 잠자리까지 어수선했던 것이다. 순이는 밤에도 자는 것 같지 않았다. 밤낮없이 누워서 신음 소리만을 내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신음 소리를 내기 위해서 장치한 기계와도 같았다. 동주는 종내 어느 날 순이에게 물어 보았다.¹²⁾

무가치하고 부정적인 인물의 설정은 예술적 변이 이전의 손창섭의 인간에 대한 모멸의식을 지적할 수가 있다. 인간에 대한 모멸의식은 인간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극한 상황이다. 이러한 의식은 인간의 전면적인 부정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가치를 부정해 버리는 것이다. 인간자체를 가치도 없는 구더기로 비하시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정의식의 한 국면인데 인간을 신음소리만 내는 기계로 비유하는 것은 비하보다 한 걸음 더 나간 인간에 대한 모멸이다. 또 인간을 유령이나 죄악의 씨로 비하시키는 것도 이 범주에 속하는 인간모멸이다.

그렇습니다. 문선생은 유령입니다. 하기는 세상 사람이 죄다 유령인지도 모릅니다. 문선생은 그래 유령 아닌 인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약간 얼굴이 질려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쳐다보는 문선생을 그대로 무시해 버리고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¹³⁾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신음소리만 내는 기계로 설정하여 인간의 존재가치를 비웃고, 또 인간을 유령으로, 더 나아가서 죄악의 씨, 악마의 씨로 설정하여 인간모멸의 극치를 보인다. 인간에 대한 모멸에서 출발한 손창섭의 인간관은 인간을 인간답게 보지 않고 죄악의 씨로 형상화한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 가치나 존재 이유마저 말-하는 작가적 태도이며 인간에 대한 부정의 표현이다.

10) 『통속의 벽』 P.156.

11) 『낙서족』 P.52.

12) 『생활적』 P.346.

13) 『신의희작』 P.238.

이놈! 장살했구나 송장고길 팔았어!

홍대정은 고향을 지르며 저도 모르는 새에 꿩이 자루를 힘껏 거머쥐고 벌떡 일어섰다. 하지만 그 이상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사나운 눈초리로 노인을 흘겨 보기만 했다. 그의 눈이 부지중 망태기 속에 들어있는 시빨진 고기덩이로 갔다 그 고기덩이와 괴죄죄한 노인의 꼴을 번갈아 보았다. 속이 메시꺼워지기 시작했다.¹⁴⁾

시체를 먹고 파는 노인의 설정은 인간의 사체까지도 고기덩이로 비하한 손창섭의 인간적 자학이다. 이러한 자학은 인간의 가치에 대한 조소이며 인간 존재를 부정하는 모멸이다.

인간의 사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숭고성을 부여해 왔다. 누구든지 사체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명복과 애도를 표한다. 시체를 고기 덩이로 보는 것은 이상성격이다. 이러한 성격장애를 크게 나누면 첫째 미숙한 성격, 둘째 반사회적 성격, 셋째 성도착증 성격, 넷째 성격이상으로 나눌 수 있다. 시체 모욕증은 반 사회적 성격에서 유래한다.

반 사회적 성격의 소유자는 항상 감정의 미숙성과 책임감과 판단의 결여를 보이며, 사회 규율을 어기고 반 사회적 행동을 되풀이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양심이나 도덕적 윤리의식의 결여에서 야기된 것이고 철학적으로는 논리의식, 정신분석학적으로는 초자아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은 충동적이고 미숙한데, 반사회적인 공격적인 성격으로 나타난다. 사체의 모욕과 비하는 인간을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본 모멸의식의 심화이다. 또 인간존재의 부정은 결국 혈육까지 부정한다.

어느 날 지즈꼬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여 그에게 임신의 징조를 알리었다. 그는 몹시 당황했다.

새끼 필요없어. 당장가서 떼어 버리고 와

아내는 영문을 몰라 S의 얼굴을 쳐다보며

왜요?

...중략...

나머지 반생마저 새끼를 위해서 착취 당하구 희생되구 싶진않아!¹⁵⁾

자기 자신의 자식까지 남기고 싶지 않다는 자기 파멸도 역시 결국은 자기부정이다.

인간에 대한 부정적 의식은 결국 자신의 부정이다. 자신도 역시 인간의 범주에 있기 때문이다. 종족 번식까지도 부정하는 파멸은 인간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자세에서 유래된 인간 모멸과 조소이다.

나는 오래간만에 동까스와 백반을 먹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본 즉 그 밑에는 3백환이라는 가격이 기입되어 있었다. 옆에와 지키고 있는 소녀더러 나는 동까스는 얼마냐고 물어 봤다. 소녀는 좀 깔보는 눈치로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예요.

했다.

틀림없이 3백환이란 말이지?

그렇다니까요!¹⁶⁾

인간에 대한 또 다른 부정적 시각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물의 설정이다. 이러한 인물에 대한 모멸은 극단적으로 정신이상에 가까운 치매성을 드러낸다. 매춘부인 광순에게 모자라는 백환을 구하려고 찾아간 것 자체가 바로 이러한 치매성의 회화이다.

아내와 장인 앞에서 변명 한마디도 못하고 죽어간 피해자의 병준 역시 치매하고 무기력한 인물의 전형이다.

손창섭은 절망적 상황에 처한 인간의 너무나도 추악하고 무력한 모습에 자조적인 냉소를 보인다. 그리고 그 짐승같은 파멸과 치매한 무기력에 짙은 혐악을 느낀다.

모멸과 회화는 인간에 대한 부정이고 또 인간이 인간 행위의 주체자로서의 자기 포기이다. 자기 포기는 결국 자기 부정으로 형상화되면서 인간에 대하여 모멸과 조소를 보냈다.

나는 언제나처럼 어이없는 공상에 취해 보는 것이다. 그 공상에 의하면 나는 지금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병리학자인 것이다. 난치의 피부병에 신음하고 있는 지구덩이의 위축을 받고 병원체의 발견에 착수한 것이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아직도 그 세균이 어떠한 상태로 발생 번식해 나가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

14) 『흑야』 P.385.

15) 『신의회작』 P.178.

16) 『미해결의장』 P.234.

니 치료법에 있어서는 더욱 캄캄할 뿐이다. 나는 지구덩이에 대해서 면목이 없는 것이다. 나는 아이들을 들여다 보며 한숨을 쉬는 것이다. 아직은 활동은 못하지만 그것들이 완전히 성장하게 되면 지구의 피부에 악착같이 달라붙어 야금야금 갉아먹을 것이다. 인간이라는 병균에 침범당해 그 피부가 느적느적 씹어 들어가는 지구덩이를 상상하며 나는 구멍에서 눈을 떴고 침을 뱉었다.¹⁷⁾

아이들에게 침을 뱉었다는 구절은 손창섭의 인간 모멸이 극대화된 표현이다. 손창섭이 지구가 앓고 있는 난치병의 병원체로 인간을 설정하고 그 인간에게 침을 뱉은 행위는 인간자체의 가치 부정이다. 인간의 본질을 먹고 자고 배설하는 동물적 본능에만 두고 인간의 가치를 부정하는 그의 의식이 인간에게 모멸과 조소를 보낸다.

인간의 가치를 인정치 않고 부정적 시각으로 인간에 모멸의 조소를 보낸 자아는 이제 자신까지도 철저하게 모멸의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인간으로서 가치 없는 존재인 자신도 결국 모멸의 대상으로 설정된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으로 조소를 보낸다. 사회에 대한 무기력으로 자신의 존재를 보잘것없는 자아로 파악한 의식은 자신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적이 다름 아닌 이기와 위선의 존재인 자신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인간 모멸의 시각은 자신까지도 모멸의 대상으로 심화시킨 의식의 노출이다. 결국 이러한 인간에 대한 모멸과 조소는 자기부정의 미학적 표현이다. 그는 자기부정을 통하여 인간에 대한 모멸의식을 형상화시켰다.

3. 결론

디지털 미디어의 캐릭터는 서사구조에 나타난 작중인물을 분석하여 스토리텔링의 구도로 활용할 수 있다.

손창섭 소설의 회화화된 작중인물은 어떤 단일개념이나 성격을 중심으로 형성된 평면적 인물이다. 평면적 캐릭터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치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인물자체가 하나의 개념이다. 이들은 깊은 사고를 하지 않는다. 어떠한 환경이든지 부딪히면 피하고 통과만

하면 되는 단순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손창섭 자신이 그려낸 독특한 작중 인물 등으로 인해 현대소설에서 부정적 미학을 창조한 의미를 부여 받았다. 뚜렷한 인물 모멸과 또 인간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불구자를 작중인물로 설정하여 전후사회의 독특한 사회현실을 리얼하게 반영하였다.

주인공을 상황적 인간으로 설정하였고 또 관시(설중행), 준석(혈서), 봉수(생활적) 등 비극과 모순을 대변하는 인물들을 설정하여 손창섭의 내면에 잠재된 부정적 본질을 밝혔다.

손창섭 소설의 주동적 인물이 대개 약한 자아의 소유자이다. 이러한 유형의 인물은 이드(Id)나 초자아(super ego)사이에서 균형을 상실해 버린 인물로 신경증적 혹은 성격 장애를 나타낸다. 하지만 이러한 증세

자체가 자의식 소설의 성격적 특징이다.

작가 의식의 심층에는 부조리와 모순된 사회를 인식하고 인간의 가치를 부정하는 모멸의식에서 표출하며 의 부상황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 극심한 피해의식을 보여 준다. 이러한 피해의식을 통하여 좌절, 도피, 고립, 해체 등의 자의식이 노출된다.

손창섭 소설의 자의식은 피해의식에서 의미를 부여받는다. 주인공인 상황적 존재와 사물적 존재들이 피해의식에 의해 도피하고 있을 때 손창섭 소설의 자의식은 실존적 상황에서 실제적 명제를 주된 동기로 형상화 된다.

Reference

- [1] Lukács, Georg, The Theory of the Novel : a Historico-philosophical Essay on the Forms of great epic Literature / translated from the German by Anna Bostock, Cambridge : MIT Press, 1973.
- [2] Edel, Leon, Literary Biography, Toronto: Toronto University Press, 1957.
- [3] Buyeong, Lee, Analytical psychology, Ilchogak, 1993.
- [4] Changbo, Seop, Amateur Writer's Telling. The complete Series of Korean Literature 3, Singumunhwasha, 1987.
- [5] Chisu, Kim, Theor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17) 『미해결의장』 P.240.

Mineumsha, 1976.

- [6] Freud, Sigmund, *Psychoanalysis and Literature*, edicted by Hendrik M. Ruitenbeek, N.Y.: E. P. Dutton & Co. Inc., 1964.
- [7] Edel, Leon, *Modern Psychological Novel*, Peter Smith Pub. Inc., 1980.
- [8] Bourneuf, Roland, *L'Univers du roman*, Paris, PUF, 1972.
- [9] Hegel, Georg Wilhelm Friedrich, *Aesthetics : Lectures on Fine Art / translated by T. M. Knox*, Oxford : Clarendon Press, 1975.

이 강 현 (Lee, Kang Hyun)



- 1981년 2월 : 전북대학교 국문학과 (문학사)
- 1984년 2월 : 세종대학교(문학석사)
- 1994년 2월 : 세종대학교(문학박사)
- 1994년 3월 ~ 현재 : 중부대학교 방 송영상 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방송문학, 고문헌

· E-Mail : bluesky@joongbu.ac.kr